DIGITAL & CONTENTS 디앤씨 미디어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08.14**

[디앤씨미디어 게임 자회사 '디앤씨오브스톰' 사업 본격화]

'어검:팔황의 수호자' 모델로 용대운 작가, 이주형 작가 발탁

▶ 대가 2인이 보증하는 고품격 무협 대작 '어검:팔황의 수호자'

▶ '혼을 다스리는 단 하나의 검' 슬로건과 게임 타이틀 로고 작업한 작가진 모델 기용

▶ 9월부터 영상 광고 등 '어검'의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진행 예정

<2018-08-14> 디앤씨미디어가 무협 MMORPG 기대 신작의 광고 모델을 기용했다.

국내 웹소설 선도기업 디앤씨미디어(대표이사 신현호)는 자회사 '디앤씨오브스톰'이 하반기 출시 예정 게임 '어검:팔황의 수호자' 광고 모델로 용대운 작가와 이주형 작가를 발탁했다고 14일(화) 밝혔다.

'어검:팔황의 수호자'는 디앤씨미디어의 게임 자회사 '디앤씨오브스톰'이 첫 번째로 내놓는 무협 모바일 게임이다. 모바일 게임인 만큼 무협 소설계의 대가 용대운 작가와 서예 캘리그라피계의 대가 이주형 작가를 기용하여 명품 모바일 게임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얼굴만 빌려주는 형식적인 모델 기용이 아니라 대가들이 직접 게임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화제다. 무협소설 작가 용대운은 '혼을 다스리는 단 하나의 검'이란 문구를, 서예 캘리그라피 작가 이주형은 게임 타이틀 '어검:팔황의 수호자'를 서예로 표현해냈고, 이는 현재 게임의 로고와 슬로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무협과 연관된 모델 기용으로 무협 관심 유저의 기대감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디앤씨오브스톰 관계자는 "두 대가가 등장하는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검:팔황의 수호자'는 무협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방대한 세계관과 탄탄한 스토리, 그 안에 존재하는 세력 간의 전쟁을 유니티 3D엔진을 활용하여 화려하고도 섬세한 그래픽으로 완성도 높게 구현하며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게임의 사전예약은 내달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게임 정보와 두 대가의 영상 풀버전은 사전예약 페이지 및 디앤씨오브스톰 공식 SNS에 공개될 예정이다.

▣ 자료문의 : 디앤씨미디어 김현효 이사 (02-6124-6391) / 디앤씨오브스톰 김지은 매니저 (010-5398-2387)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10-7139-5888)

IR KUDOS Valuable IR Consulting